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통통

경
제
통
통

FOCUS

- 해커들의 마라톤 글로벌 해커톤, 2015년 7월 서울서 열린다
- 서울시내 전통시장, 신용카드·티머니 결제 가능해진다

ZOOM IN

- 유제품업계 '일명 밀어내기' 다소 개선, 지속적 근절노력과 관심 필요

HOT ISSUE

- 中 녹지그룹, 상암 DM C개발 공개 경쟁 입찰 참여
- 서울시, 시가 155억 원 상당 위조 상품 45,096점 적발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실 gykim@seoul.go.kr)

| 해커들의 마라톤 글로벌 해커톤, 2015년 7월 서울서 열린다

해커들의 마라톤, 「글로벌 해커톤(Hackathon)」이 미국·중국 등 전 세계 청년과 IT개발자, 신생기업 등 2천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5년 7월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국제규모의 해커톤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해커톤은 해커(Hac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혁신적인 프로그램, 제품 등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미국 실리콘밸리식 끝장대회

• 주제에 맞는 모바일 앱·콘텐츠 등 구체적 IT제품개발, 우수 아이디어는 창업지원

「글로벌 해커톤 서울」은 3박 4일간 정해진 주제의 모바일 앱, 콘텐츠 등 IT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며, 결과물을 심사 평가해 우수한 참여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한다. 또한 행사에 국내외 우수 IT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초청, 참가자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유명 기술자와 CEO 등 IT분야의 저명 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최신기술과 IT산업의 흐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에게는 제품·기술력 홍보기회 제공, 해외진출·IT인재유치 기반마련

참여기업 홍보 부스도 별도로 마련, 국내외 투자자 및 언론에 우수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기반 조성,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부족한 IT분야 인재 채용도 지원한다.

• 서울시 - 美 비영리단체 글로벌 해커톤과 행사개최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이를 위해 서울시와 미국비영리단체 ‘글로벌 해커톤’은 2014년 12월 29일 「서울시-글로벌 해커톤 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는 해커톤 참여 청년들이 창설한 미국 미시건주 주재 비영리 단체로, 국제 해커톤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해 정보통신(ICT)분야의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시내 전통시장, 신용카드·티머니 결제 가능해진다

이제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콩나물 천 원어치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린 후 1시간 이내 탑승 시 사용한 교통카드로 장을 보면, 구매금액에서 천원이나 깎아 준다.

• 망원·길동·신원·신창·영천·정릉시장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서울시내 전체시장으로 확대

서울시는 ▲망원시장(마포구) ▲길동시장(강동구) ▲신원시장(관악구) ▲신창시장(도봉구) ▲영천시장(서대문구) ▲정릉시장(성북구) 등 6개 시장으로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서울시내 330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는 물론 티머니형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완료,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할인



① 티머니나 후불교통카드를 대기만하면 결제가 되는 RF방식의 간편결제단말기를 점포에 비치해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소액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5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무서명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신용카드 가맹점도 늘려갈 예정이다.

③ 버스·지하철 하차 후 1시간 내 해당 교통카드로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물건값에서 1천원을 즉시 환승 할인해 준다.

• 소액결제 활성화 위해 6천원 이하 카드수수료의 70% 시가 지원, 결제대금 입금일 통일

상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6천원 이하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평균 1.5%)의 70%를 시가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원 대상기준을 1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을 일괄 취급해, 한날한시에 결제대금을 상인들에게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간편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전통시장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상인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유제품업계 ‘밀어내기’ 다소 개선, 지속적 근절노력과 관심 필요

서울시는 유제품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여부 확인을 위해 292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두 달간 「유제품 가공분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현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① ‘밀어내기’ 등 부당강요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변함없다’는 응답도 있어

미주문상품 공급 및 주문량 이상의 제품구매를 강요받는 일명 ‘밀어내기’ 관행

⇒ ‘개선’ 65.8%, ‘경험 없음’ 26.4%,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 7.5%

‘밀어내기’ 관행이 일부 유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② 밀어내기 때문에 발생했던 ‘주문내역 임의변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본사가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내역 관련 서류·정보 열람을 거부하는 관행 ⇒ ‘개선’ 59.6%, ‘경험 없음’ 33.9%로 조사

‘밀어내기’ 를 위해 발생했던 불공정거래 관행이므로 함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9개 대리점은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 고 응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③ ‘반품거부’는 11.7%가 <변함없다> 응답, 불공정거래 관행이 남아 있어

제품 공급시 본사 잘못으로 제품이 파손됐거나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 물품에 대해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또 반품비용을 대리점으로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선 ⇒ ‘개선’ 49.7%, ‘경험 없음’ 38.6%,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 11.7%

타 항목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

④ ‘떡값강요’ 등 부당 요구도 많이 개선, 상대적으로 불공정 관행 가장 적어

거래와 무관한 명절떡값, 소개비, 회식비 등을 강요하는 관행

⇒ ‘개선’ 37.7%, ‘경험 없음’ 비율이 57.9% ,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 0%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은 것으로 조사

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은 14.0%가 <변함없다>고 응답해 개선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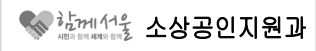
본사로부터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촉사원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

⇒ ‘개선’ 33.6%, ‘경험 없음’ 52.4% ,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 14.0%

‘반품거부’ 와 함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가장 많은 분야로 조사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02-2133-5561~2,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中 녹지그룹, 상암DMC 랜드마크 개발 공개 경쟁 입찰 참여



서울시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綠地:뤼디)그룹이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DMC 랜드마크 사업은 F1블록(3만777.4㎡)과 F2블록(6484.9㎡) 등 2개 필지(총 3만7262.3㎡)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

으로, 이곳을 숙박·문화·집회·업무시설로 개발해 세계적인 IT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녹지, 서울의 디지털미디어산업 경쟁력과 한-중교류 급증기대로 투자계획

녹지그룹 측은 서울은 한류 열풍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한-중 FTA 체결, 위안화 국제허브 구축 등으로 양 국간 경제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DMC 투자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디지털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중국기업들의 서울 투자를 지원·유도하기 위해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시, 공개경쟁을 통해 더 좋은 개발(안) 선정하기 위해 경쟁조건 논의 중

서울시는 부동산 상황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경쟁조건과 평가기준에 대해 위원회 등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4년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매각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 중 공개경쟁입찰방식 공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투자의향서 체결은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 재개를 위한 신호탄으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서울시와 DMC 랜드마크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시가 155억 원 상당 위조 상품 45,096점 적발

서울시는 2014년 한해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주택가 및 일반상가, 특1급 호텔 등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90건을 적발, 총 45,096점을 압수했다. 정품 시가로 치면 약 155억 5,115만원에 달한다.



• 도용품목 액세서리(71.7%) > 의류(15.9%) > 귀금속(2.5%) > 잡화(2.1%) 순

단속 결과 적발된 품목 총 1,118종으로 액세서리가 32,376점(71.7%)로 가장 많았으며, ▲ 의류 7,189점(15.9%) ▲ 귀금속 1,170점(2.5%) ▲ 패션잡화 964점(2.1%) ▲ 지갑 872점(1.9%) ▲ 안경 438점(0.97%) ▲ 가방 379점(0.86%) ▲ 화장품 270점(0.60%)이 뒤를 이었다.

• 도용상표는 샤넬(32.8%) > 에트로(15.8%) > 루이비통(14.1%) > 토리버치(6.8%) 순

도용상표는 171종으로 샤넬이 14,810점(32.8%)으로 가장 많았고 ▲ 에트로 7,153점(15.8%) ▲ 루이비통 6,361점(14.1%) ▲ 토리버치 3,108점(6.8%) ▲ 구찌 2,151점(4.7%) ▲ 페라가모 1,949점(4.3%) ▲ 버버리 1,659점(3.6%) ▲ 몽클레어 1,528점(3.3%) 순이었다.

• 불법제품 계도 및 단속 지속 실시, 이번달부터 KC마크 홍보 캠페인도 실시

서울시는 시는 위조상품 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6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형 도매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상 대상 현장설명회, 시민과 지역 상인 대상 국가통합인증(KC(Korea Certification)마크 계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 1일부터는 공산품안전관리(KC 마크)위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